서효인의 '소설처럼'

피치보다 뜨거운 소설 -김병운 소설집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월드컵 열기가 뜨거운 요즘이다. 월드컵에서 우리가 강호였던 적은 없지만, 강호가 아닌 한국이 다른 축구 강국을 가끔 잡아내는 장면은 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귀한 장면에 열광한다. 카타르 월드컵에 나선 국가대표팀은 이전의 국가대표팀과 조금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선수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인터뷰에서 '우리의 축구'를 하겠다고 말한다. 월드컵 이전 몇몇 평가전에서 도대체 우리의 축구라는 게 무엇인지 의심 어린 설왕설래가 있었으나, 본선 조별 리그 두 경기를 치른 후에는 결과를 떠나서 우리 축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 많은 이가 뿌듯해 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우리의 축구를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맞춤한 축구를 해왔다. 객관적 전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그런 축구는 정답처럼 여겨졌다. 예컨대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빠르게 역습을 하는 것이다. 미드필드를 거치지 않고 높게 띄워 문전으로 볼을 보낸 다음 세컨드 볼을 노리는 것이다. 강한 정신력과 투혼으로 상대의 능수능란한 공격을 결연히 막아내는 것이다. 이런 축구 또한 그 자체로 매력이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기억도 많지만, 어쨌든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대놓고 드러내는 주체적인 축구는 아니었다. 상대의 정체성에 나를 맞추어 대응하는 소극적인 축구라고 볼 수도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경기를 주도한다. 선수들의 말처럼, 우리의 축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축구를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좋은 결과까지 얻어내면 좋겠지만, 축구는 인생과 같고, 꼭 인생이 내 마음처럼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토록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음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김병운 작가의 소설집 '우리가 기다릴 때 하는 말들'을 이야기하기 위해 축구와 월드컵이라는 빌드업을 거쳤다. 다소 멀리 돌아왔나 싶지만 일곱 편의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머뭇거리고, 실패하는 과정 그리고 이내 용기를 내고 스스로 빛을 내는 장면들은 피치(경기장) 안에서의 인물들의 움직임과 직관적으로 통했다. 소설의 중심인물들은 대체로 성소수자다. 그들은 사회적 억압과 편견에 맞춤하여 살기도 하고, 그것에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며 유연한 방식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혹은 오롯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주저하지 않는 모습도 있다.

표제작 '우리가 기다릴 때 하는 말들'에서 화자인 '나'는 문학 강좌에서 오스카 와일드의 죽음을 두고 작가의 정체성을 대상화한 부적절한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는다. 그는 그곳에서 없는 사람이고 싶었으나 또 다른 수강생 '안부현'의 일갈과 눈빛이 거기에 제동을 건다. '나'는 당혹스러운 체념으로 상황을 넘기며 어쩔 수 없음을 스스로에게 강변하지만, 죽은 작가로 대체된 자신의 정체성이 조롱당하고 부정당한 기억은 상흔이 되어 남을 것이었다. 안부현의 어릴 적 친구 '임순영'은 상대적으로 정체성 찾기에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안부현의 부탁으로 아들 연기를 하게 된 나는 임순영을 기다리며 안부현에게서 고향 친구인 임순영을 떠나 급하게 결혼을 택한 사연을 듣게 된다. 안부현은 두려웠던 것이다. "이러다 우리가 뭐라도 될까 봐, 나를 향한 순영이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걸 아니까, 내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원한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그런 건 잘못됐고 비참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임순영은 결코 비참하지 않은 모습으로 안부현 앞에 나타난다. "마지막까지 용기를" 낸다.

카타르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이자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다. 그에 반대하기 위해 계획된 무지개 완장과 같은 표현의 자유 역시 억압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을 리 없다. 김병운 소설은 그 있음을 드러내려는 뜨거운 용기이자, 그 있음의 다양성을 조심스레 발설하는 스피커다. 거의 모든 소설은 정체성 드러내기의 과정이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뒤따른다. 그 답을 알았다면, 그 답대로 살아야 한다. 오답임을 알아챘다면 행로를 변경해야 한다. 그 과정 자체가 소설이 되고 인생이 된다. 어떤가 이것은 꼭 축구와 같지 않은가? 〈시인〉

의료칼럼

구강 편평태선

박현정
조선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

입안의 염증이 잘 낫지 않아 이리저리 병원을 찾아다니다 구강 내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다. 구강 편평태선은 피부질환으로 면역계 질환이다. 이렇게 환자들에게 설명하면 바로 "면역이 너무 약해져서 그런가요?"라고 되묻는다. 이 질환은 면역이 약해졌다기보다는 너무 과민해진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몸은 외부에서 어떤 침입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면역 반응에 돌입한다. 그러나 편평태선은 내 것을 외부의 것으로 여겨 공격하게 되는 일종의 '자가면역'과 같은 형태의 질환이다.

편평태선은 피부와 구강내 점막에 양측성·다발성으로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 피부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구강 내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혼재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구강내 병소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피부에도 병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질환은 표층에 있는 상피와 하방 결체 조직 사이 결합이 분리돼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 과정에서 T림프구 매개 면역 반응이 진행돼 발생된다.

질환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스트레스, 국소 자극, 약물, C형 간염 바이러스 등 다양한 요소가 증상 악화에 관여한다. C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들의 구강 내에서 편평태선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력 청취를 통해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자들에게 사용되는 티아자이드(Thiazides) 이뇨제와 같은 특정 약에 의해 편평태선과 같은 모양으로 구강내 병소가 발생될 수 있어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해당 약을 중단하면 병소가 소실된다. 따라서 병력 청취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개 40대 이후 중년의 성인에게 흔히 나타나며, 남녀는 비슷한 유병률을 보인다. 대개 위캄(Wickham) 선조라고 하는 백색의 레이스, 그물 모양의 형태를 띠는 백색선의 유무가 진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구강 편평태선의 종류는 다양하다. 특징적인 백색선만 존재하는 망상형에서부터 붉은 색으로 세포층이 벗겨진 형태의 미란형, 피부층이 파괴된 형태의 궤양형, 수포를 동반하는 수포형, 그 외 소상(focal)형태의 평탄한 표면에 다소 융기된 형태의 구진형까지 다양한 형태를 띤다. 망상형과 구진형은 백색 병소들로 대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 유형에서는 증상의 심도에 따라 통증이 달라진다.

현재까지는 구강 편평태선의 치료법은 없다. 다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조절하는 대증요법만 존재할 뿐이다. 구강 편평태선은 경미한 형태에서부터 매우 심한 형태까지 다양한 증상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고,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반면에 증상이 심하다면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스테로이드의 국소 또는 전신 투여로 조절한다. 또한 레티노이드를 국소적으로 도포하면 구강 내 망상형·미란형의 병소가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약물치료와 함께 증상 조절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등의 조절이 필요하며, 오랜 만성 염증으로 인해 구강 위생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스케일링 등의 관리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과일 및 채소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고 금연 및 금주가 필요하다. 완치는 되지 못하지만 적절한 약물 치료, 스트레스 관리, 구강 위생 관리, 식생활 관리 등을 통해 증상이 관리될 수 있는 질환이다.

낫지 않는 질환이라고 여겨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더욱 심해져 통증뿐만 아니라 식이 문제 등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증상이 심하게 되면 스테로이드의 전신 투약 등의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따라서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된 상태에서 국소적인 약물 치료 및 관리로 지속적으로 조절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 질환이다.

구강 편평태선의 경우 이들 환자들 중 1~2%에서 암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통증 등의 불편감이 없더라도 조직 검사 및 정기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암으로 변화되기 쉬운 혀 부위, 후구치 부위의 병소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시행한 후 약물 치료를 추천한다. 알려지지 않고 근거가 없는 민간요법이나 올바르지 않는 치료를 받음으로써 조기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면 조기에 암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평가를 위해 구강 내과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을 찾아 임상 검사 및 조직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중요하다.

기 고

보통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

김요수
광주연합기술지주 대표

나이가 들면 고유명사를 깜박깜박 잊는다고 한다. 맞어 맞어, 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일까? 나이가 들면 관심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특정 이름을 잘 떠올리지 못한다. 젊은 사람이라도 관심 분야가 아니면 고유명사를 잘 모른다.

요즘 고유명사가 어렵기는 하다. 아파트 이름도 우아하게(?) 짓는데, 오죽하면 시댁 어른들이 찾기 힘들게 짓는다는 웃음엣소리가 나왔을까? 고유명사를 잊는 건 방송사 때문일 수도 있다. 방송에서는 광고 효과나 비난 효과 때문인지 특정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 덕분인지 방송을 하지 않는 사람도 '너튜브'나 '별스타그램'이라 부르고, '땡땡 밥집'이라 한다. '땡땡'은 동그랗다는 뜻을 가진 왜말이다.

언론이 마구 떠드는 짜깁기 낱말, 정치가 퍼붓는 뒤죽박죽 낱말, 먹물들이 만들어내는 전문용어, 정부가 섞어 내놓는 알쏭달쏭한 말들 또한 고유명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남자답게 이겨내야지, 멈추면 안 돼!' 울긋불긋한 가을 메길(산길)을 가는데 들린 소리다. 돌아보니 아빠가 지친 아이를 다그친다. 아이의 눈에서는 닭똥만한 눈물이 흐르고, 울음소리를 참느라 이는 앙다물었다.

'남자다움'은 뭘까? 힘들어도 이겨내고 참는 것? 거칠고 우락부락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가난을 이기느라 허리띠 졸라매며 가정을 이끌었던 어른들은! 군사독재의 획일화된 명령을 따르느라 행복을 반납하며 살았던 시절에는!

'남자 새끼가 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치렛거리(액세서리)를 만드는 젊은 남자를 보고 어느 어르신이 한 말이다. 그의 말에서 '남자 새끼'는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새끼'라는 말은 어린 짐승을 말하는데 욕은 아니지만, 거칠게 소리 내면 욕이 된다.

일하기 편하게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여자에게 '여성스럽게 입어야지, 그게 뭐야?' 이런 말을 툭 던지는 사람 있다. '여성스러움'은 뭘까? 치마에 나풀거리는 블라우스, 굽 높은 구두? 다소곳하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것?

여자를 그냥 일 거드는 곁꾼으로 여기거나 행사장의 치렛거리쯤으로 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남자다움과 여성스러움이 아니라 '나다우면' 되는 것 아닌가? 남자다움이란 말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여성스러움이란 말로 남의 삶을 함부로 규정지어도 될까?

언젠가 거친 말다툼을 구경하는데, '남자답지' 못하다고 다그치자, '너는 남자답냐?'고 되물으니 상대가 꼼짝 못했다. 직장 상사가 '여성스럽지' 못하다고 나무라자, 탕비실에서 '지는 여성스러운가?' 하며 비웃는 소리를 들었다.

'~답다'와 '~스럽다'는 말 앞에는 보통명사를 붙이는 게 아니라 고유명사를 붙여야 맞다. '남자답다'가 아니라 '유재석답다' '여성스럽다'가 아니라 '오드리햅번스럽다'고 써야 한다.

보통명사를 붙여 다그치면 눈치를 보고 자신감을 잃는다. 눈치는 없어도 염치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보통명사를 붙여 평균의 잣대에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한다. '~답다'와 '~스럽다' 앞에는 고유명사를 붙여 고유의 삶을 찾고, 고유의 행복을 쌓아가야 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80% 결원' 방역 전담 공무원 처우 개선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조류독감)가 전남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6일 장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후 보름만에 고흥, 나주 등 세 개 시군 다섯 개 농장에서 65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특히 전국 최대 가금류 사육지인 나주에선 세 개 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최일선에서 차단 방역을 전담하는 수의직 공무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벌써부터 업무 과중에 대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남 22개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 총 정원은 78명이지만 현재 근무중인 인원은 16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80%가 결원인 셈인데 목포·장흥·해남 등 여섯 개 시군에는 아예 한명도 없다.

올해 전남 지역 첫 조류독감 발생지인 장흥의 경우 수의직 공무원 세 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한 명도 채우지 못했다. 전남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수의 7급' 채용 공고를 내고 47명을 모집했지만 응시자가 없어 다섯 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이례적으로 지난 9월 재공고를 내고 42명을 선발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두 명밖에 뽑을 수 없었다.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은 일선 현장뿐 아니라 가축 시료 채취와 전염병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도 마찬가지다. 82명이 정원이지만 현원은 65명뿐인데, 이 중에서도 지난 3년간 17명이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

인력난의 원인은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 탓이 크다. 반려동물 시장 확대 속에 동물병원을 개업하면 수의직 공무원 연봉을 한 달이면 버는데 누가 월급도 적고 힘든 가축 방역 현장에 가려 하겠는가. 군복무 대체 제도인 공중 방역 수의사가 운영되고 있지만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미래 동력' 정부 공모 사업 선정 끝까지 최선을

전남의 미래가 걸린 중앙 부처의 대형 공모 사업 대상지가 이번 달에 줄줄이 발표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업은 이달 말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다. 전남에서는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1700만㎡), 무안군이 항공 국가산단(1500만㎡) 조성 제안서를 각각 제출했다. 광주도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유치에 나섰다. 산단 한 곳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만 3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유치를 신청한 전국 18개 자치단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6~8개를 국가산단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1일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우주발사체, 위성, 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클러스터) 지정도 초미의 관심사다. 전남도는 우주항공 집적단지를 갖춘 고흥의 입지적 강점을 들어 지정을 낙관하면서도 상황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순천·담양·영암·완도 등 네 개 시군이 신청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도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선정되면 180~2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중앙 부처 공모 사업은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수백 억~수천 억의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국가산단 지정의 경우 통상 5년마다 이뤄지는 만큼 탈락하면 사업 추진이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 도시재생 뉴딜 역시 지역 특성을 살린 옛 도심 개발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205건의 중앙 부처 공모 사업을 유치해 1조 3183억 원의 국비 지원을 이끌어 냈다. 이번 공모 사업들도 체계적인 전략으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여 영원히'

광주시향이 연주하는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를 라이브 연주로 듣는 건 오랜만이었다. 20분 정도의 연주 시간 동안 광주의 오월을 떠올리며 음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격한 감정의 동요가 인다. 연주가 끝나고 문득, 광주 이외의 사람들도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에 거주하던 윤이상은 계엄군의 총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꿈에라도 가고 싶었던 조국으로부터 날아든 소식을 듣고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한다. 마침 쾰른 서독일방송오케스트라(WDR)로부터 신작을 위촉받은 상태였고 완성된 곡은 1981년 5월 8일 쾰른에서 초연됐다.

이날 광주시향의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베토벤의 '황제'와 스크라빈의 '2개의 서곡 중 1번', 몸포우의 '정원의 소녀들'을 연주했고, 영화 '플래툰'에 삽입된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도 선보였다.

이날의 레퍼토리는 지난 10월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다시 공연됐고, 실황은 세계적인 레이블 도이치그라모폰을 통해 발매됐다. 음반은 예약 판매를 포함, 이미 클래식 음반으로는 드물게 1만 장 넘게 판매되며 플래티넘을 기록했다. 며칠 전 음반 발매 관련 인터뷰 후 주변에서 음반을 구입했다는 소식도 자주 들려온다.

물론 이런 판매 기록과 이슈는 요즘 가장 핫한 임윤찬이 만들어 낸 것일 터다. 하지만 그가 인터뷰에서 "광주시향 단원들이 엄청난 에너지로 연주하는 걸 보고 큰 영향을 받았다." "라흐마니노프에게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있다면, 제 마음에는 광주시향이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 언급했듯, 그들이 서로 신뢰하고 함께 연구하며 호흡을 맞춰 일궈 낸 결과이기도 하다.

'황제'를 듣기 위해 음반을 구입한 이들이 '광주여 영원히'에 귀 기울여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월 광주를 기억하고, 대한민국 민주화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광주여 영원히'가 자주 연주돼 스메타나 '나의 조국'(체코)이나 시벨리우스 '핀란디아'(핀란드)처럼 광주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곡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민주, 인권,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각국의 콘서트홀에서 끊임없이 연주되는 날이 오기를.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광주시향의 연주도 크게 울려 퍼지길.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